

영남대학교 이호수 총장님, 21세기는 Y형 인재 시대!

손다영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2007년 3월, 스무 살의 부푼 꿈을 안고 영남대학교에 입학했다. 약 100만 평의 드넓고 쾌적한 캠퍼스에서 더 큰 날갯짓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해 10월, 우리대학 학생홍보대사인 '영대사랑'으로 선발되면서 나의 미래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2년 뒤, '특별한 분'과의 만남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내 인생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2009년 2월 12일, 총장님의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이 날은 바로 향후 4년간 우리대학과 학우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껏 전진하실 이호수 총장님의 취임식이었다. 2만 학우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총장님의 취임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

까? 몇 안 되는 인원 중에 속해 총장님께서 내딛는 첫 발걸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단순히 취임식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뻐던 것은 아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기뻐다. 총장님께서 '세계화와 지역화를 함께 추구하는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Y형 인재 육성(미국 MIT대학의 맥그리거 교수가 제시한, 도덕적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인재상+영남대의 영문이니셜+두 팔을 벌려 세계와 미래를 향해 환호하는 천마인의 상징)'을 강조하셨고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다.

개인적으로는 총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기뻐다. 사실, 총장님께 있어서도 취임식은 매우 중요하고 긴장되는 자리였을 것이다. 행사 안내 및 여타 진행을 맡은 우리에게 직접 격려를 하실 여력이 없으셨을 텐데, 한 사람 한사람에게 악수를 청하시며 건네주셨던 '값진 격려'를 생각할 때면 지금도 마음이 파스해진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효수 총장의 공통점?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

대학교수로서의 이효수 총장님은 현실과 이론이 잘 조화된 수업과 인생 선배로서 들려주는 따뜻한 조언들로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다. 학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5분 동안 기립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는 우리대학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나는 처음 '5분 기립 박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장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난 지금은 기립 박수로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학우들의 마음을 심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김현승 시인의 시 「아버지의 마음」이다.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엮보이는 작품이다. 총장님을 생각하면 이 시가 떠오른다. 총장님이 우리대학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들이 기립 박수를 친 이유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총장님을 보면서 마치 아버지 같은 온화함과 배려를 느껴서가 아닐까.

지난 5월 SBS '희망 TV-대한민국이 떴다'가 우리대학에서 열렸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총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공부방을 지어달라며 성금을 전달하시던 총장님. 그때 그의 얼굴에 가득 피어나던 온화한 미소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다. 분명 총장님의 눈웃음은 소녀시대의 티파니보다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의 눈웃음은 단순한 매력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날의 가슴 찡한 장면과 총장님의 미소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총장님의 평소 생활을 볼 때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생각난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과 이효수 총장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검소함이다. 스테이



크보다는 호박잎쌈을 좋아하시고, 허례허식보다는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하신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일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으시다고 한다. 보통 직위가 높아질수록 걸치레에 신경을 쓰고 이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는 총장님을 뵈 때면, 나도 거만하고 흐트러진 사람보다는 선비의 절제와 검소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낀다.

하지만 총장님은 따뜻하고 온화하신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학경영에 있어서는 냉철한 두뇌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묻어있는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신다.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은 스티브잡스, 연설과 설득의 달인은 우리 총장님이 아닐까? 예외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총장님께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YU Glocal Initiative!

총장님께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지금 우리학교는 많이 변했다. 우선 '취임 6개월 만에 국비 1천억 원 유치'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뿌듯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대학의 비전 'YU Glocal Initiative' 달성에도 확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녹색성장 분야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 수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진취성과 적극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영남대 해외자원봉사단은 전국 대학 최초로 황사의 진원지인 쿠부치 사막(중국 내몽고)에서

'생명의 숲 가꾸기'에 나섰으며, 8월 말에는 4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학생 240명이 8일간 영남순례대장정을 떠난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여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신설되었음 하는 프로그램을 건의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특강과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것이다. 'Y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의 노력과 'Y형 인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잠재의식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1947년에 설립돼 어느덧 62번째 개교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영남대학교. 날로 급박해지는 세계화와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하지만,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총장님,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손수 답글을 작성해주시는 총장님, 그리고 온화한 미소와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신 총장님이 계시기에 우리대학의 새로운 비전 'YU Glocal Initiative'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실 이효수 총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